광주FC, 관중 '매진 사례'에도 웃지 못한다

내일 전북과 홈경기 전석 매진
전북팬 원정 응원단 대거 입장
지붕 없는 가변석 경기장 '흔들'
부실한 철골구조 보강공사 진행
일부 좌석 판매 못하고 주차난까지

광주FC가 '매진 사례'에도 웃지 못하고 있다.

광주는 24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전북현대를 상대로 K리그1 19라운드 홈경기를 갖는다. A매치 휴식기로 K리그가 잠시 쉬었던 만큼 축구팬들은 19라운드 경기를 기다렸다.

이번 매치도 흥미롭다. 반등을 이룬 두 팀의 '순위 싸움'이다.

7경기 연속 무승에서 벗어난 광주는 3연승을 내달리는 등 최근 리그 5경기 연속 무패 중이다. 현재 성적은 7승 4무 7패(승점 25)로 8위다.

시즌 초반 부침을 겪었던 전북도 최근 3연승에 성공하면서 8승 3무 7패(승점 27)로 5위에 랭크됐다. 광주와는 승점 2점 차.

이번 경기에 또 다른 관전 포인트도 있다. 시즌 중반 전북 지휘봉을 잡은 단 페트레스쿠 감독이 광주에서 K리그 데뷔전을 치른다.

흥미로운 경기가 예고되면서 관중석 열기도 뜨겁다. 예매 시작과 함께 대부분의 좌석이 빠져나갔고, 광주는 22일 구단 SNS를 통해 매진과 관련한 공지를 올렸다.

광주는 공지를 통해 "전북전 홈경기 티켓이 온라인 예매로 전석 매진됐다. 경기당일 현장 매표소에서는 티켓 구매 및 무료입장은 불가하며, 온라인 예매 티켓 교환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당일 혼잡을 우려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평소보다 일찍 경기장에 올 것을 당부했다.

올 시즌 광주는 홈 9경기에 3만 3101명이 입장하면서 평균 관중 3678명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시즌 20경기에서 기록된 2만 6154명을 이미 넘어섰다.

2023시즌 눈에 띄게 관중수가 늘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번 매진은 앞선 열기와는 다르다. 광주는 전북팬들이 새 감독의 경기에 맞춰 대거 원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응원석이 아닌 일반석까지 전북팬들이 포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팬들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원정 응원석을 따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반석에서 원정팀의 유니폼이나 응원도구 등을 지참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퇴장조치까지 가능하다.

홈팬과 원정관중이 혼재된 상황에서 경기가 긴박하게 돌아가면, 관중석도 과열될 수 있다. 대규모 원정팬들의 방문을 앞두고 광주 구단의 긴장감이 커지는 이유다.

축구 흥행을 만점 활용할 수 없는 경기장 상황도 아쉽다.

광주월드컵 경기장을 사용했던 광주는 2020시즌 중반 광주축구전용구장에 새 둥지를 틀었다.

'전용구장'이라는 타이틀은 달았지만 지붕도 없는 가변석의 열악한 경기장이다. 타구단 연습 구장 수준의 경기장으로 논란이 많았고 올 시즌에는 관중석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철골 구조로 된 이동형 가변석이 흔들리면서 관중석 보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안전 진단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원정석으로 이용되던 1000석 정도는 당분간 판매할 수 없다.

원래 경기장도 10000석이 조금 넘은 규모로 본부석과 시야 방해석 등을 제외하면 실제 판매되는 좌석은 7000여석이 조금 넘는다.

또 주말 경기에는 마트 이용객들까지 겹치면서 주차대란도 벌어지고 있다. 열악한 경기장 상황 탓에 관중 폭발에도 마냥 웃지 못하는 광주다.

만원 관중을 앞두고 광주가 긴장감 속에 주말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24일 전북현대를 상대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K리그1 19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전북전 입장권이 모두 팔려나가는 등 매진 사례를 이루면서 관중석에 시선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3월 5일 FC서울과의 2023시즌 홈 개막전에서 관중석을 가득 채운 광주팬들. 〈광주FC 제공〉

광주FC, 조지아 국대 출신 스트라이커 베카 영입

광주FC가 조지아 국가대표 출신 스트라이커로 화력을 강화했다.

광주는 22일 산드로를 대신할 새 외국인 선수로 베카 미켈타제(25·Beka Mikeltadze·사진)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베카는 조지아 연령별 대표팀(U-17, U-19, U-21)을 모두 거친 엘리트로 지난 2020년에는 국가대표로도 이름을 올렸고, A매치 두 경기에도 출장했다.

185cm·77kg 탄탄한 체격을 갖춘 베카는 연계 플레이와 공간 침투, 공격 위치 선정이 뛰어난 최전방 스트라이커다.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빌드업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

2014년 FC제스타포니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베카는 FC디나모 트빌리시(조지아 1부), 아노스소시스FC(키프로스 1부), FK루빈카잔(러시아 1부), FK로토르 볼고그라드(러시아 1부) 등 유럽 무대에서 활동하며 컵대회와 리그 우승에 역할을 했다.

2021-2022시즌 호주 A리그의 뉴캐슬 제츠로 이적한 베카는 팀의 주포로서 활약하면서, A리그 올스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2-2023시즌에는 6골을 기록하면서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다.

광주에서 K리그에 도전하게 된 베카는 "아시아 무대에 발을 내딛으면서 자연스럽게 K리그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1부리그에서 짜임새 있는 축구를 펼치는 광주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내가 할 일은 팀을 위해 헌신하고,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광주 팬들이 내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시즌 중반 팀에 합류해 18경기에서 7골을 터트리며 우승에 기여했던 산드로는 지난달 18일 무면허 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면서 60일간 활동 정지 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자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산드로는 브라질 파라주의 새로운 운전 면허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마이그레이션 작업으로 면허 발급이 지연되면서, 국제면허증 없이 자신의 렌트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한 뒤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외국인 투수 메디나 퇴출

대체 외국인 선수 물색

KIA 타이거즈가 새 얼굴로 선발 한 자리를 채운다.

KIA는 22일 한화이글스와의 시즌 9차전을 앞두고 엔트리에 변화를 줬다. 전날 선발로 나와 2이닝 3실점으로 부진했던 메디나를 말소하고, 우완 김승현을 콜업했다.

김종국 감독은 '대체 외국인 선수'를 언급하면서 메디나와의 작별을 공식화 했다.

메디나는 지난 20일 한화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와 3회말 강판됐다.

선두타자 장진혁에게 좌전안타를 맞은 메디나는 이도윤과 정은원에게 연달아 볼넷을 허용하면서 만루 위기를 자초했다. 이진영과의 승부에서도 볼넷을 기록, 밀어내기로 1-1 동점을 허용했다.

결국 투수가 김유신으로 교체됐지만 이 이닝에서 KIA가 3실점을 하면서, 메디나의 성적은 2이닝 2피안타 3볼넷 3실점이 됐다. 외국인 선발의 부진 속 KIA는 '최하위' 한화에 4-7패를 당했다.

메디나가 이날 경기만 부진했던 것은 아니다.

메디나는 최근 3경기에서 채 5회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메디나

9일 두산전 4.1이닝 3실점, 15일 키움전에서는 3.1이닝 3실점을 남겼다. 3경기 연속 조기 강판된 메디나는 한화전 경기로 올 시즌 평균자책점이 5.79에서 6.05까지 치솟았다.

무엇보다 외국인 투수에게 기대하는 이닝 성적도 낙제점이다.

메디나는 4월 26일 NC전에서 8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선보이기는 했지만 올 시즌 12경기에서 58이닝을 소화하는 데 그치면서 일찍 짐을 싸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클린스만 감독 "축구 색깔? 시간이 필요해"

대표팀 4경기 무승 기자회견
"선수들 성향 파악이 중요"

"우리가 펼치려는 축구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2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과 5명의 코치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렸다.

분위기는 '청문회'처럼 흘러갔다. 클린스만호가 3월과 6월 A매치 기간 평가전 4경기에서 2무 2패에 그쳐 부진의 원인을 따지는 질문이 많았기 때문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하면서 '공격 축구'를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어떻게 공격 축구를 구현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없다.

특히 첫 승이 기대됐던 6월 A매치 기간 또다시 '무승'에 그치면서 팬들의 머릿속에 물음표는 더 커졌다. 클린스만호는 이달 16일 페루전에서 0-1로 패하고 20일 엘살바도르전에서는 1-1 무승부를 거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궁금증은 해소되지 못했다. 어떤 스타일, 어떤 전술의 축구를 펼치려고 하는지 묻는 말에 클린스만 감독은 계속 모호하게 답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난 공격축구를 좋아한다. 전방에서부터 압박하고, 수비라인도 끌어올리는 축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전술보다는) 나와 함께하는 선수들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어떻게 합을 맞출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들의 기량을 어떻게 하면 100% 끌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A매치 4경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향후 대표팀 운영 방향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기자가 '그래서 정확히 어떤 축구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클린스만 감독은 "어떤 축구를 하기를 원하느냐"고 웃으며 되묻기도 했다.

기자들의 거듭된 '추궁' 끝에 돌아온 답은 "시간이 필요하다"였다.

클린스만 감독은 "공격적인 축구를 하려다 보면 여러 전술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 선수들의 기량도 고려 요소다. 어떤 선수와 함께할 수 있는지, 어떤 선수 조합이 가능한지에 따라 스타일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축구 색깔이 뭐냐고 물었을 때 우리의 축구는 이런 축구라고 대답할 수 있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방을 향해 롱킥을 넣어주는 축구도 공격 축구가 될 수 있다"면서 "선수 성향과 성격에 따라 조합을 맞춰나가다 보면 우리의 축구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적이 안 좋다 보니 클린스만 감독을 제외한 외국인 코치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A매치 때만 한국에 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슬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KIA, 챔필에 '호걸이 조형물' 등 고객 공간 조성

KIA 타이거즈가 챔피언스필드에 팬들이 즐길 수 있는 CX(고객경험) 공간을 조성했다.

KIA는 챔피언스필드 개장 10년 차를 맞아 5출입구 앞 광장에 대형 호걸이 조형물, 오늘의 라인업, 상설 공연장이 꾸려진 'EV 스페이스'(Expecting Victory Space)를 마련했다.

KIA가 챔피언스필드 5출입구 광장에 설치한 대형 호걸이 조형물. 〈KIA 타이거즈 제공〉

먼저 호걸이 조형물(에어벌룬)은 높이 6.5m로 KIA 응원봉인 '호통이'를 들고 응원하는 모습으로 제작됐다. 호걸이 조형물은 연말까지 전시될 예정으로 경기가 없는 날에도 팬들에게 공개,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V 스페이스에서 당일 경기 선발 출전 선수들의 사진도 만날 수 있다. 선발 출전 선수가 확정되는 경기 1시간 전, 대형 호걸이 옆 오늘의 라인업 보드에 해당 선수들의 브로마이드가 게시된다.

KIA는 5번 출입구 계단을 좌석으로 활용한 상설 공연장도 운영한다. KIA는 비시즌과 원정 경기일에 지역 청년과 예술인들이 상설 공연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KIA 마케팅팀 관계자는 "무등야구장 리모델링이 완료되면서 공사 기간 동안 통제됐던 5출입구 앞 공간을 정비해 EV 스페이스를 조성했다. 야구팬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도 사랑 받는 랜드마크로 자리잡길 기대한다"며 "오는 23일 KT와의 경기 전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